

# 광주,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국제실증 선도

###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 선정...국비 100억 원 확보 전남대에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상용화시설 구축

광주시는 산업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과제인 바이오인테페이스 인체이식형 생체흡수성 의료기기 실증 기반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산업부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기술적 한계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바이오인테페이스 기술과 생체흡수성 소재 기술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시장 진출 특화 실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공모를 진행했다.

생체흡수성 소재가 적용된 바이오

인테페이스 기술은 인체 조직과 의료기기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생체적합성 증진 기술·약물전달 기술·생체영상 기술·치료기술 등이 적용된 최신 융복합 기술이다. 여기에는 의료용 코팅 기술도 포함된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광주시는 전남대학교에 2026년까지 국비 등 총 사업비 176억 원을 투입, 노화질환 대응용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특화 전주기 상용화 지원을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한다.

이 사업은 주관기관인 전남대학교 생체재료개발센터가 수행하며 광주

테크노파크·전남대학교병원·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연세대학교의료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한다.

광주시는 ▲시제품 제작 지원 ▲국내외 시험·평가·인증 지원 ▲의료기기 병원 코드 등록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기업 제품의 실증과 인허가 애로사항을 해결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치과·정형외과 특화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이었던 치과생체흡수성 중소파터너 지원사업 기반을 고도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전 분야 실증이 가능하도록 확장하고, 치과·정형외과 분야 외에 심혈관·일반외과·안과 분야 제품 실증을 지원한다.

제품개발·상용화 기술지원 체계와 국제인증 통합지원체계 운영을

통한 국내 첨단의료기기 개발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 국내 매출 증가 100억 원, 글로벌 시장진출 성과 100만 달러 달성, 직접고용 87명 유발 등 경제효과가 기대된다고 광주시는 밝혔다.

김용승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 은 "사업 선정을 통해 기존 치과·정형외과 중심의 광주시 의료산업 실증기반이 심혈관·일반외과·안과 등 제품 실증으로 범위가 확장될 것"이라며 "광주시가 명실상부 국내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특화 국제실증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 “광주다움 통합돌봄 국가 차원 확산해야” 광주다움 통합돌봄 주제 정책포럼

민선 8기 광주시 복지분야 공약 1호로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모델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국가 차원에서 전국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시는 13일 오후 시의회 예결위 회의실에서 광주시의회·한국사회복지학회·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함께 '광주시, 통합돌봄의 새로운 장을 펼쳐다'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었다.

포럼에는 전국에서 모인 학계 인사와 보건복지부, 부산·충북·경남 등 지자체, 광주시 자치구와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 통합돌봄 관련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통합돌봄 현황 분석과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시사점을 짚고 향후 국가 돌봄정책의 비전을 모색했다.

'통합돌봄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는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체계의 혁신이 필수적인데, 광주시에서 '행정이 돌봄을 계획하고, 민간이 실행'하는 선도적 체계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다"며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의료와 돌봄의 연계, 정보기술을 결합한 서비스 플랫폼 개발 노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선주 기자

## 군공항 무안 이전 성명 잇따라 전남여성단체도 나서

광주 군·민간공항의 전남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을 촉구하는 전남 지역 사회단체 성명발표에 여성단체도 나섰다.

전남여성단체협의회는 13일 무안 중앙공원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광주시와 무안군에 올바른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무안군에 "편향된 정보 제공 행위를 중단하고, 지역 내 찬성 의견에 귀를 기울여 일방적인 반대를 멈추고 전남도와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를 향해서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으로 이전이 확정된 것처럼 광주시민에게 홍보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먼저 전남도민에게 알리고 실행하는 게 급선무"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 발표를 주최한 여성단체협의회 최두례 회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 관련기관의 대화를 요구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전남도와 무안군이 공식적인 대화의 자리를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에선 지난 1일과 7일에도 전남도사회단체연합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가 성명을 발표하는 등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지역 내 여론이 커지고 있다.



강기정 시장이 지난 12일 오후 동구 광주전통문화관에서 열린 제1회 광주비엔날레 예술의 날 행사에 참석해 콩고대사·가이국 주한대사 배우자 등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강기정 시장, 7개국 대사·배우자 초청 문화외교

콩고대사 등 외교사절단 1박2일 광주 방문...비엔날레 관람

광주시가 비엔날레와 풍요로운 문화예술을 널리 알리기 위한 국제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은 지난 12일 오후 동구 전통문화관에서 제1회 광주비엔날레 예술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아토키 일레카(ATOKI ILEKA) 주한 콩고민주공화국 대사와 배우자, 중국·우크라이나·앙골라·잠비아·슬로베니아·벨라루스 주한 대사 배우자가 함께 했다.

강 시장은 환영 만찬을 열고 광주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인 문명자·황승욱·이영애 선생의 가야금 병창, 시립교향악단의 현악4중주 공연 등을 선보이며 문화로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번 초청은 강 시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광주비엔날레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 국가전시관인 파빌리온 공유와 확대 운영 등을 위한 것이다.

이들은 1박2일간 광주에 머물며 제14회 광주비엔날레·파빌리온 전시·가야금 병창 등 무형문화재 공

연 등 문화광주를 체험했다.

광주시는 도시문화외교를 통해 광주비엔날레의 외연 확장과 광주의 문화적 자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토키 일레카 주한 콩고민주공화국 대사는 "광주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경험하며 매력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광주시와 도시외교를 통해 우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멋과 맛과 의가 살아 숨쉬는 문화예술 향기를 흠뻑 느끼시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경험은 광주비엔날레 성공의 중요한 다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 풍수해·폭염 여름철 자연재난 공동 대응 광주시, 무더위쉼터 등 조기 가동...침수방지시설 설치

광주시는 13일 시청 총무실에서 문영훈 행정부시장 주재로 협업부서 과장과 자치구별 부구청장·광주기상청 예보관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여름철 자연재난 총력 대응을 위한 풍수해·폭염 대응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역대급 폭염과 강우 예고에 발 빠른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기관 간 협업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광주시는 올해 폭염에 대비, 예년보다 빠른 지난 5월 말부터 ▲그늘

막 521곳 ▲무더위쉼터 등 2000여 곳 ▲도로 살수장치 2곳 ▲쿨링포그 23곳 등을 가동했다.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과 반지하주택 출입구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하반기 10억8000만 원을 추가 투입, 그늘막 등 폭염저감 시설 확충과 살수차·무더위쉼터 운영 하는 한편 1억6600만 원을 들여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조선주 기자

## “광주·전남, 반도체 산업 육성 최적지”

지역 경제계, 특화단지 지정 촉구

지역 경제계가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는 13일 목포·여수·순천·광양 등 전남지역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5개 상회의는 성명을 통해 "광주와 전남은 오랜기간 지역 불균형에 따라 열악한 산업 인프라, 인구의 유출, 인력난 심화 등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지역 경제 침체, 인구 유출, 지역 소멸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반도체와 같은 미래 핵심 산업의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회의는 "광주와 전남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육성의 최적지다"면서 "충분하고 안정적인 용수의 공급과 오픈수의 처리는 물론 GIST·전남대를 비롯한 지역 내 우수한 대학들과의 연계를 통한 각종 연구와 기술 개발, 우수인재 양성 등 다양한 역량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형안 기자

전라남도 방문의 해 2022-2023

전라남도

신안 퍼즐교

순천 순천만국가정원

상성 백양사

목포 해상케이블카

# 너도, 나도, 남도

남도여행길잡이

검색